■문학의 향기

수채화

권필원(시인)

은빛 모래사장 옆
오붓하게 모여 있는 조약돌들의 소곤거림
물 먹은 나룻배의 초라한 모습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새겨놓은 언약들
능수버들 가냘픈 몸짓도 사실적으로 그렸다
물결치는 밀밭 위에 노니는 아지랑이도
파란 들판 유채꽃 몇 송이도
노란 물감으로 콕 찍어 발랐다



내 가슴속에 간직한 수채화 속에는
뻐꾸기 울음소리도 그려 넣었다
산골짝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도
초록 물감으로 콕 찍어 그려 넣었다

그 수채화 한 폭이
지금 나의 가슴속에 소장되어 있다

스쳐 간 바람은
스쳐 간 인생은 그릴 수가 없었다

- 약력 -
《문학 에스프리》와 《문예사조》 신인상 등단, 〈태사문학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금천문화재단 이사장·한국문인협회 금천지부 회장·한국창작문학 회장 등 역임, 시집 『혼돈』, 『이 시대의 번뇌를 넘어서』(공저) 외 다수

존경과 실망

-지천 권명오(수필가, 칼럼니스트)

어영부영 어느덧 인생 90년 세월이 지나고 있다. 세상 오래 살다 보니 좋은 일 궂은일 갖가지 생사의 갈린 길 등을 극복해 가며 오뚝이처럼 일어나 파란만장한 아리랑 고개를 넘고 넘는다. 정인과 은인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사랑도 받고 존경의 대상. 실망의 대상과 동고동락한다.

살아온 90년 세월을 돌이켜보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도 미련한 인간은 배우고 깨닫지 못해 자신의 이해관계만 중요시할 뿐 사랑하고 배려하고 베풀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다. 필자 역시 다를 바가 없지만 그래도 정의롭게 사랑하고 베풀며 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세상사는 상대가 있고 또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의 노력과 뜻대로 잘 안되는 것 같다. 인간은 같은 인간이고 공평하지만 사는 방법과 생각은 천차만별이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 다른 불의한 행위를 식은 죽 먹듯 마구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양보를 못 한다. 비판만 하는 내로남불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

필자는 그동안 흠모하고 존경한 사람들을 격찬해 왔는데 훗날 그들의 불의를 알게 돼 충격이 컸고,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들이다. 그런데 필자가 사람의 한 단면만 보고 너무 쉽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남용한 것이 무책임한 행위임을 통감했다. 그 때문에 함부로 존경이란 표현을 마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독자들에게 잘못을 실토한다.

하기야 존경과 실망이 백지 한 장 차이와 다름이 없더라도 실망보다는 존경의 대상이 많아야 인류 사회가 평화롭고 의롭고 행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진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 ABC인 데도 지키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생사 세상사가 고달프고 아프고 또 비극이 그칠 날이 없다.

조건과 이유가 있는 사랑과 베품은 보이지 않는 고약한 불의이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 이유 없이 베풀고 사랑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심성들이 넘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과학 문명이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인성은 메마르고 각박해져 사람들이 문명의 노예가 돼 독서를 통한 정서교육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 때문에 책이 팔리지 않아 유명 서점들이 문을 닫고 또 백과사전들과 양서들이 쓰레기통에서 울부짖는 현실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 발전할지 알 수가 없지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진선미는 변할 수가 없다. 각자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아갈 삶을 위한 정도의 길이 중요한 복락과 구원의 길이 될 것이다. 존경을 받으려는 노력을 일소하고 존경을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선택하자.



- 약력 -
경기도 파주생(1936년), 중앙대학교 연극 영화과 졸업, 신무대 실험극회 창립, KBS-TV 탤런트 공채, 12년간 TV 드라마 출연('여로', '0시의 지령', '정명 아씨' 등 500여 편), 애틀란타 연극협회 초대 회장, 애틀랜타 칼럼니스트·수필가·시인, 신문화 수필상, 국제문화예술상, 자랑스런 한인상 수상, 칼럼집 Q형, 애틀랜타 연극연출(아메리카 저 멀리카, 도라지 강도, 번지 없는 주막, 오렌지 카운티에서 생긴 일, 홍도야 우리 마라, 울고 넘는 박달재), 애틀랜다 한국학교 이사장, 애틀랜타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 권순긍의 **온고지신**溫故知新

〈햄릿(Hamlet)〉, 복수보다 '정의'의 실현



권순긍
(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불후의 명대사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세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비극 『햄릿(Hamlet)』(1601)은 4대 비극 중 가장 먼저 창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세계문학사에서 '모나리자'라 불릴 만큼 불멸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햄릿은 행동으로 선뜻 옮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인간으로 등장한다. 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인간형을 '햄릿형'이라 부르기도 한다.

부왕의 죽음, 그 거짓과 진실

모두 5막 20장으로 구성된 〈햄릿〉은 부왕의 어이없는 죽음과 이를 증언하려는 유령의 등장으로 막을 연다. 의문의 죽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종의 스릴러물로, 연극은 이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부왕이 정원에서 낮잠을 자다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며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숙부인 클로디우스가 왕위를 차지했으며 왕비인 거트루드까지 숙부와 결혼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자,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재직)에서 유학 중이던 햄릿은 급거 덴마크로 귀국하여 이 모든 일들을 목도하고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유령이 바로 죽은 부왕과 닮았다는 보초병의 말을 듣고 햄릿은 직접 그 유령과 조우한다. 부왕의 유령과 만난 햄릿은 그에게서 숙부가 자신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극악무도하게 살해된 아비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당부까지 받는다. 이제 다음 과제는 과연 숙부가 부왕을 정말로 살해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밝히고, 어떻게 복수를 감행하는가이다.

햄릿은 부왕의 복수를 위해 우선 '거짓 미치광이 노릇'을 할 작정으로 친구인 호레이쇼에게 내색하지 않기로 맹세를 받는다. 실제로 햄릿의 '거짓 미치광이 노릇'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 햄릿이 미쳤다고 여기고 특히 연인인 오필리아는 그 때문에 괴로워한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것이다.

드디어 햄릿은 왕궁을 찾은 유랑극단 배우들에게 빈에서 일어난 '곤자고 살인사건'을 다룬 〈쥐덫〉을 내용을 약간 수정해 공연토록 의뢰하고, 이를 왕이 보게 하여 그 반응을 살피고자 한다. 연극이 공연되고 극단의 배우가 잠자는 왕의 귀에 독약을 넣어 살해하는 장면을 본 왕의 고문인 폴로니우스는 "연극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왕은 "햇불을 밝혀라! 물러서라."고 부르짖는다. 이제 살인의 증거는 명백해졌다. 숙부가 부왕을 독살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럼 이제 부왕에 대한 복수만이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복수의 칼을 들었건만

부왕을 살해한 숙부에 대한 복수의 집념으로 그를 죽이려 기회를 엿보던 중, 햄릿은 더러운 살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숙부를 발견하지만 차마 실행하지 못한다. 실상 기도하는 숙부를 죽임으로써 "악당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대가로 외아들인 내가 그를 천국에 보낸다?" 여겨 "구원의 냄새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태는 예상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거짓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햄릿을 왕비이자 친모인 거투루드가 불러 지나친 행동을 타이르던 중, 이를 엿듣는 왕의 고문 폴로니우스를 칼로 찔러 죽이고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된 것이다. 게다가 부왕의 유령이 머뭇거리는 햄릿에게 다시 출현해 "내가 온 것은 네 무뎌진 결심의 날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복수를 다그치기도 한다. 이제 햄릿의 운명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온통 걷잡을 수 없는 복수의 불길 속으로 떨어져 파멸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왕은 살인을 저지른 햄릿을 동창 2명과 함께 영국으로 피신시킨다는 핑계로 햄릿을 즉시 죽이라는 취지의 국서까지 영국 왕에게 보낸다. 이제 햄릿은 거꾸로 복수의 칼끝에 자신이 당할 처지에 몰렸다.

하지만 햄릿 일행이 영국으로 가던 중 불행 중 다행으로 해적들에게 붙잡히게 되어 햄릿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햄릿을 죽게 협조했던 친구들은 "고해할 시간도 없이 즉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햄릿이 국서를 가지고 간 자들을 처형하라고 내용을 고쳐 보냈기 때문이다. 이제 햄릿은 홀로 덴마크로 살아 돌아와 복수의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버지 폴로니우스가 사랑하는 연인 햄릿의 칼에 질려 죽자 미쳐버린 오필리아는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 익사하고,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레어티즈는 햄릿에게 복수하려 왕이 시킨 대로 날카로운 '복수의 칼'에 독을 바른다. 드디어 복수의 무대가 펼쳐지고 레어티즈와 햄릿은 서로에게 칼을 겨눈다. 왕비는 햄릿이 이기도록 축배를 들지만 그 잔은 왕이 햄릿을 죽이기 위해 독약을 탄 술이다. 결국 왕비는 독배를 마시고 죽어가고, 독을 바른 레어티즈의 칼날이 햄릿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서로 엉켜 다투는 중에 칼이 바뀌 레어티즈도 상처를 입는다. 왕비는 죽어가면서 그 술이 독배임을 밝히고, 레어티즈와 햄릿은 같이 독을 묻힌 칼날에 상처 입고 죽어가면서 서로를 용서한다. 모든 일은 왕이 복수를 가장해 햄릿을 죽이도록 시도한 끔찍한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햄릿은 "칼끝에 독! 그렇다면 독이여, 구실을 하렸다."며 그 칼로 왕을 찔러 처참한 복수를 완성하고 자신도 죽음을 맞는다.

〈햄릿〉은 표면적으로는 부왕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햄릿의 가혹한 운명을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르네상스 휴머니즘 정신을 반영하여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 곧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절대적이고도 '진정한 선'이 무엇인가를 작품에서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회의한다. 해서 부왕에 대한 복수가 과연 정당한가를 놓고 햄릿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갈등한 것이다.

게다가 왕자 햄릿은 부왕의 복수를 완수하여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적어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사악한 왕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는 레어티즈를 설득해 햄릿을 죽이도록 날카로운 칼에 독을 묻혀 결투를 벌이도록 부추켰으며, 음료수에 독을 타서 독살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햄릿은 호레이쇼에게 숙부가 부정한 왕임을 이렇게 얘기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아버지인 선왕을 살해하고 내 어머니마저 차지하고 왕위에 오를 나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그런 더러운 속임수로 내 목숨을 빼앗기 위해 낚싯대를 던진 이런 인간을 이 손으로 해치우는 것이 이제 내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그대는 생각하지 않나? 이런 인간 벌레를 가만히 둬서 더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 아니겠나?"며 복수를 결행할 의지를 밝히지만 오히려 숙부의 계략에 당해 레어티즈와 함께 죽음을 맞는다. 마지막 순간에야 숙부를 찔러 복수를 끝냄으로써 정의를 실현했다. 따라서 햄릿의 갈등은 그저 복수로 끝나고 마는 욕망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를 걸고 삶의 진실을 찾아 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서울지역종친회 가을 단풍놀이

회원 여러분!
가을입니다. 소요산은 사계절 관광객과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 동두천시 제1경으로 가을이면 단풍이 절정입니다. 특히 신라의 고승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오는 신라의 고찰 자제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많이 참여하여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6년 11월 8일 일요일 11시
♣ **장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 **교 통** : 전철 1호선 소요산역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6년 1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67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67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026년 11월 15일(일) 10시 30분 (시간 엄수)
♣ **집합장소** : 공항선 전철 검암역 대합실
♣ **산 행 지** : 식당 주위 산책길 1-2시간 소요
♣ **준 비 물** : 충분한 간식, 물 등(점심은 회비로 식사)

● 회 장 권경탁: 010-3796-4047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종우: 010-5418-4299

2026년 1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경탁